

한문 정답

1	④	2	②	3	⑤	4	①	5	①
6	⑤	7	⑤	8	④	9	⑤	10	②
11	③	12	①	13	④	14	③	15	①
16	④	17	②	18	②	19	②	20	③
21	①	22	⑤	23	③	24	⑤	25	④
26	②	27	④	28	④	29	③	30	①

해설

- 【출제의도】 한자를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뛰어넘을 일’자에 해당하는 한자 모양을 찾는다.
-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음·의를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한자는 ‘배 주(舟)’자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한자어에 활용한다.**
⑤의 ‘배, 간, 복, 배’는 ‘신체’에 관한 한자군이다.
- 【출제의도】 사전에서 조건에 맞는 한자를 찾는다.**
부수의 변형과 획수를 알고 자전을 찾을 수 있는 지문은 문항이다. ‘ㄹ’은 ‘ㄷ’의 변형이고, ‘?’는 ‘水’의 변형이며, ‘也’의 획수는 ‘3획’이다.
-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쓴다.**
똑같은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더라도 획의 위치에 따라 음과 뜻이 전혀 다른 한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 【출제의도】 한자어를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서간－편지’는 동의어 관계이다. ⑤는 동의어 관계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반의어 관계이다.
- 【출제의도】 한자어를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한다.**
작품에 참신성을 부여하는 문학적 표현기법 중 ‘모순 형용(矛盾形容)’은 역설의 기교에 해당한다.
- 【출제의도】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쓴다.**
‘교감(校監)’은 학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감독하는 사람이고, ‘교감(交感)’은 서로 접촉되어 감응함이다.
- 【출제의도】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쓴다.**
‘지도’는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이 시는 ‘연리지’의 고사를 모티브로,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시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한다.**
그림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변함’을 뜻하는 ‘興世推移’의 고사를 만화로 나타낸 것이다.
-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을 안다.**
허수를 포함한 7개의 글자 카드 중 4자를 추출하여 성어를 완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속뜻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 ‘結者解之’이다.
- 【출제의도】 속담의 속뜻을 안다.**
ㄱ. 높이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ㄴ. 아랫돌 빼서윗돌 끼기
ㄷ. 천릿길도 발밑에서 시작한다.
ㄹ. 9층의 탑도 토대를 쌓은 데에서 시작한다.
ㄴ은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이고 나머지는 ‘일을 하는 데는 순서가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 【출제의도】 명언·명구의 속뜻을 안다.**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

각각의 존재들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말한 글이다.

15. 【출제의도】 선인의 삶과 지혜를 이해한다.

- 단단하다 자랑하지 마라. 같고 같면 뚫어지는 법이니, 배움에 뜻을 두는 것도 어찌 이 같지 않겠는가?
- 네 몸은 단단해서 먹으로써 같고, 붓으로써 나타내고, 종이로써 완성한다.

벼루에 새긴 명문(銘文)으로 앞부분은 학문에 정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린 글이고, 뒷부분은 벼루에 담긴 의리(義理)를 밝힌 글이다.

16. 【출제의도】 명언·명구의 속뜻을 안다.

대화의 내용은 남(경쟁자)을 이기기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17.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여 내용을 안다.

해와 달(세월)은 간다.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아! 늙었구나.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제시된 지문은 세월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므로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18～19】

사람/사람/업에 따라/그 몸을 받네/괴로움과 즐거움은/선과 악의 인과로다.

18. 【출제의도】 한시를 풀이하여 내용을 안다.

이 시는 인과응보(因果應報)를 주제로 읊은 것이다.

19. 【출제의도】 한자어의 짜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은 <대립 관계>이다.

【20～21】

- 중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하노니, 남을 위하여 피함에 정성을 다하지 못했던가? 벗과 사귀에 미덥지 못했던가? 가르침을 익히지 못했는가?”이다.
- 남을 이기는 사람은 지혜롭고, 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총명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다.

20.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여 내용을 안다.

한문에서는 대개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풀이된다.

21. 【출제의도】 선인의 삶과 지혜를 알고 가치관을 형성한다.

제시된 대화의 내용에는 상대방을 정성껏 배려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22～23】

김 선생은 답소를 잘하였다. 일찍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더니, 주인이 술상을 차려 왔는데 다만 채소만 주셨었다. 주인이 사과하여 말하기를, “집은 가난하고 시장은 멀어, 전혀 맛있는 음식이 없이 오직 담박한 것뿐이니, 이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네.” 라고 하였다. 마침 여러 마리의 닭들이 뜰에서 어지러이 모이를 쪼고 있거늘, 김 선생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는 법이니, 당장 내 말을 잡아서 술안주로 하겠네.”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말을 잡아먹으면 무엇을 타고 가려나?” 하니, 김 선생이 말하기를, “닭을 빌려 타고 가지.”라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크게 웃고는 닭을 잡아 그에게 대접하였다.

22. 【출제의도】 선인의 삶과 지혜를 이해한다.

친구네 집을 찾아가 기지와 익살로 닭을 잡도록 하

는 김 선생의 면모는 ‘절제’와는 거리가 멀다.

23.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킨다.

㉡은 말을 잡아먹자는 김 선생의 말에 대해 의문을 던진 말이다.

【24～26】

무릇 천지간의 사물에는 각각 주인이 있으니, 만일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비록 터럭 하나라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오직 강가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그것을 들으면 음악이 되고, 눈으로 그것을 보면 경치가 된다. 그것을 가져도 금함이 없고, 그것을 써도 다함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조물주의 무진장한 창고로,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길만한 것이로다.

24. 【출제의도】 한자문화권 내에서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가), (나)는 모두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허자의 쓰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은 대명사로써 ‘그것’으로 풀이되고, 나머지는 관형격으로 ‘~의’로 풀이된다.

26. 【출제의도】 한자를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임자(주인)’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는다.

【27～28】

- (가) 우리는 위로 백성들을 다스릴 임금이 없어 백성들이 망자하여 제멋대로 행동하니, 어찌 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세워 도움을 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나) 우리나라에 처음에 임금이 없었으니, 어떤 신인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니, 이분이 ‘단군’이다.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나중에 도읍을 백악으로 옮겼다.

27.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여 내용을 안다.

(가)는 신라 건국 신화에 관한 글이고, (나)는 단군 신화에 관한 글이다.

28. 【출제의도】 한자어의 음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한다.

㉠: 아베, ㉡: 증민, ㉢: 방일, ㉣: 백악

【29～30】

- (가) 봄날 강남의 기러기가,
줄지어 북으로 또 날아가네.
울 때 내 아우를 보았으련만,
어찌하여 함께 오지 아니하였는가.
(나) 인생살이 마흔이 너무도 지루해라.
가난과 병이 서로 이어져 잠시도 아니 떨어지네.
가장 한스러운 것은 물과 산이 다한 곳에서도,
목 놓아 통곡하고 노래하지 못함일세.

29. 【출제의도】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가)에서는 대우가 활용되지 않았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한다.

(가)는 봄이 되어 북으로 돌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헤어진 아우를 그리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가)의 제2구는 ‘연향부북비’로 읽는다.
(나)는 작자가 사십 평생을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온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토로하면서, 망국민이 된 자신의 슬픔과 비애로 연결시켜, ‘노래하기도, 울기도 어려운’의 격정으로 표출시키고 있다.